

행안부 - 지역공동체 일자리(균특)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직접일자리/소득보조형
- 소관부처/담당부서 : 행정안전부/지역일자리경제과
- '21년 평가등급 : 우수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사업내용) 지역자원활용, 지역기업연계, 서민생활지원, 지역공간개선

☐ 예산 및 재원: 균특회계

〈표 1〉 지역공동체일자리 예산 및 재원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집행률)			(%)
<input type="checkbox"/> 지역공동체 일자리	42,116	-	39,441 (93.6)	38,476	3,640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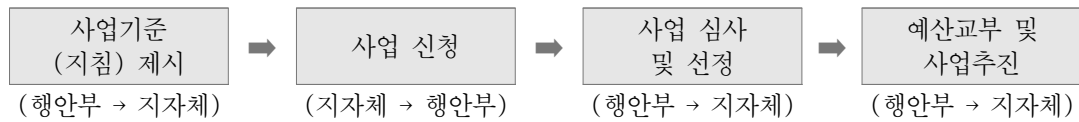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주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미만인 자

□ 사업운영 개요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참여대상 기준 완화(재산 2억원 미만 → 3억원 미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업내용 자체 변경 허용
 - 전체 사업비의 50%이내 방역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21년 한시적용)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¹⁾

- (전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13,284명으로 직접일자리사업 전체 참여자의 1.4%, 소득보조형 전체 참여자의 1.5%에 해당
- (성별) 성별로는 여성 참여자 비율이 59.3%로 남성(40.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연령대별로는 장년층(55~64세) 참여자 비율이 4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년층(35~54세)이 27.6%, 고령층(65세 이상)이 22.7%, 청년층(15~34세)이 9.7% 순으로 나타남

1) 본 자료는 11월 기준 일모아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이므로 아래 '20년 12월말 기준 사업부서의 통계치와 상이할 수 있음.

(단위: 명, %)

인원	성별		연령별					
	남	여	29세 이하	30~39	40~49	50~59	60~64	65세 이상
14,272	5,885	8,387	760	1,063	1,804	3,563	3,512	3,570
	41.3	58.7	5.3	7.5	12.6	25.1	24.6	25.0

주: 1) '20.12.31. 기준 정산자료 기준임.

2)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표 2〉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개인)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직접일자리 전체	970,557 (100.0)	327,960 (33.8)	642,597 (66.2)	36,794 (3.8)	58,650 (6.0)	100,584 (10.4)	774,529 (79.8)
소득보조형 전체	870,163 (100.0)	287,255 (33.0)	582,908 (67.0)	13,696 (1.6)	30,007 (3.4)	72,780 (8.4)	753,680 (86.6)
지역공동체일자리	13,284 (100.0)	5,412 (40.7)	7,872 (59.3)	1,284 (9.7)	3,664 (27.6)	5,321 (40.1)	3,015 (22.7)

주: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정량지표별 결과2)

〈표 3〉 지역공동체일자리 성과지표

(단위: %)

	반복 참여율	취약 계층 참여율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 소요 기간
				6개월 (180일)	
직접일자리 전체	3.1	57.3	37.7	37.8	91.5
소득보조형 전체	1.7	73.4	31.2	30.7	89.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균특)	1.4	80.8 (119.5)	54.0	15.6	114.9

주: 1) 취약계층 참여율의 () 안의 수치는 2020년 재정일자리사업 합동지침상의 취약계층 참여 목표 대비 달성 비율임

2) 본 사업을 포함한 소득보조형 사업은 반복참여율과 취약계층참여율만을 성과지표로 적용하나 타 직접일자리사업과의 비교를 위해 다른 성과평가지표도 함께 제시함

□ 만족도 조사 결과

〈표 4〉 지역공동체일자리(균특)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점검		
직접일자리 전체	3.92	3.92	3.79	4.06	3.66	3.38	3.81	4.05	4.09	3.88
소득보조형 전체	3.98	3.98	3.86	4.08	3.70	3.49	3.89	4.13	4.13	3.96
지역공동체 일자리(균특)	3.88	3.89	3.81	4.01	3.52	3.54	3.84	4.16	3.95	3.84

주: 1)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2) 전반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절대적 만족도: 사업 내용 관련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

주관적 만족도: 사업 참여 후 사업에 대해 가지게 된 긍정 인식 정도 / 상대적 만족도: 사업 참여 전 기대대비 만족도

2) 본자료는 '20년 11월 기준 일모아시스템에서 산출 값을 기초로 분석한 자료이며, 사업부서 통계치인 '20년 12월 말 기준 자료에서는 취약계층 참여율은 전체참여자(14,272명) 대비 96.0%(13,694명)임.

〈표 5〉 지역공동체일자리(군특) 사업 참여자 민간일자리 희망 및 이행여부 조사결과

(단위: 명, %)

	전체	민간일자리 희망	민간일자리 이행
직접일자리 전체	4,609	47.3	40.3
소득보조형 전체	1,965	42.7	28.3
지역공동체일자리(군특)	238	47.9	19.3

주: 만족도 조사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 참여 종료 후 민간일 자리를 희망하였는지, 실제 민간일자리 이행에 성공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주요 평가 결과

- (사업중요도)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고, 이들에 대한 지역공동체 차원의 일자리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임. 이러한 노동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와 같은 직접일자리사업의 역할이 중요
 -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간 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 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단기 일 자리를 제공하여, 개인 생활의 안정과 근로역량 유지에 기여
- (일자리사업 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등으로 판단할 때 사업의 성과는 높게 평가됨
 - 코로나19로 인해 선발모집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에도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및 영상회의를 활용한 홍보와 소통의 노력으로 '20년 성과목표(10,500명) 대비 실적 130%(13,696명)로 초과 달성 및 실집행률 전년대비 4.1p 상승
 - * 1분기 12회, 2분기 10회 신속집행 점검회의 개최하여 부진단체 점검
 - '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고용환경 및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역, 예방접종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장에 취업취약계층 채용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의 경제적 효과 도출

-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취업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 창출 목표인원을 초과 달성('20년 계획 1.05만명 → 실적 1.37만명)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 향상에 기여
- 총 집행액 중에서 비수도권 집행비율이 76.1%(총 집행액 39,441백만원, 비수도권 집행액 30,010백만원)로 국가 균형발전 등에도 기여
- (고용창출) 지자체 주도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구 분	18년	19년	20년(잠정)
참여인원	13,271명	17,569명	13,696명

- (취업지원) 취업취약계층 고용 및 생계안정에 기여

구 분	18년	19년	20년
참여인원	16,947명	16,947명	13,174명
참여율	96.4%	96.5%	96.2%

* 출처: 행안부 제출자료(2021)

- (운영 적절성) 전년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생산적 일자리 사업으로 설계,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청년일자리 및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설계 등으로 볼 때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됨
- 생산적·지속적 일자리로의 재편을 위해 자체적으로 4유형(마을가꾸기 등) 48%이내로 제한
- 21년도 코로나 19대응을 위해 사업내용 자체 변경을 허용하는 시행지침 개정(21.1.18.)
- (현장 모니터링) '지자체 세부사업 설계 → 공모·심사'과정을 통해 지자체별 고용여건 및 참여자 수요를 반영한 예산 배분과 분기별 현장점검, 지자체 자체 정기 및 특별 점검을 통해 현장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제도개선 노력)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지적된 개선사항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 등에서는 특성상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

- 하반기 현장점검 추진(1회, 16개 사업) : 행안부, 지자체 담당자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추진상황, 사업장 관리실태, 참여자 애로상황 청취

* (상반기) 코로나19사태로 자체점검추진/ (하반기) '20.10.11.~11.16.

- 시행지침 개정안 지자체 의견수렴(9.14.~10.16.) : 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21년 사업지침 통보('21.1.8.)
-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추진(지역 사회연구원, 9월~10월)
- (전년도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반영) 취약계층의 소득보전 목적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일자리로의 이동 지원 필요
- (생산적일자리 사업 설계 유도) '21년 사업계획 수립 시 생산적 일자리사업 비중 목표를 52%('20년 50%)로 상향 조정하고, 단순 일자리인 지역공간 개선형 사업은 '21년 48%('20년 50%)로 축소
- (고용서비스 지원 확대) 사업참여자의 고용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최소 3회 이상), 직업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사업종료 이전에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참여(최소 3회 이상) 등을 '20년부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명시